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개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6.20 09:15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수완1제, 도천2제 환경정화 활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지난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용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지역본부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눠 진행됐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춘배 기자 acbae@afnews.co.kr

농어촌공사 전남,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 전개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5:59 |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5:59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025.06.19
ej7648@newspim.com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융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역본부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라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멀리도 가까이도 또렷이

인텔리전트 줌 기술을 채택하여 도수는
까지 대응 가능합니다.

luckyjelly.com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ESG 경영 실천 저수지 환경 정화 활동

박성화 기자 기사수정 2025-06-19 17:18

0

김재식 본부장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8일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많이 본 기

1 하영 일
우까지

2 김선아,
러넘치

3 마동석
급? 침

4 소유 “
‘물지마

5 ‘170cn
앞두고
량 도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융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역본부 약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 | 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0

스타★들



‘곰신 탈출’;
고우림과 파



한혜진♥가
12주년 “늘



연예 랭킹

1 주영훈,
김급수

2 최윤영·
형 어필
☑ (돌싱포

주요 뉴스



추천 콘텐츠

‘이것’ 부족하면 운동 소용없다.. 갱년기 살찐 진짜 이유

워킹맘 로즈

“다시 찹 까봐 겁났는데...” 유럽에서 난리난 XXX 다이어트 방법

워킹맘 로즈

충격적인 목주름 생기는 원인 (+80만뷰)

뷰앤디

걷기 대신 이 운동, 매일 5분하면 "강철무릎" 될 수 있습니다.

큰딸민지

Tabooka 후원링크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4 이서이
문 충격

5 “나 서들
인 최초
100점

해외 토포

딸 바다 빠지
아빠...디즈
일생'(영상)

베트남 리조
사...유족 “느
타임 놓쳐”

“사람도 죽인
문 닫기 1초?

장례식날 헬
졌다... “이웃
막 축복”(영

이코노믹
잠든 모습에

오늘의 핫이슈

저희 강아지는 겁이 너무 많아요 개선이 가능 한가요?

왈스TV | 재생 831회



00:00 | 04:24

720P



연예인 지

최란♥이충
187억에 팔
50억'
☒

조정석 부동산



“나 서울대 나온 남자야” 연예인 최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호주, 죄수 유배지였는데…경제대국 된 배경 (벌거벗은 …



이동욱♥이성경 꿀 떨어지네 (착한 사나이)

‘불륜→이혼
김학래 100%
개 (1호가 될

동두천에 90
수·전현무 “궂
귀)



방탄소년단, 2026년 봄 완전체 컴백…신보·월드투어 …



최란♥이충희, 서울숲 아파트 187억에 팔았다 ‘시세차익’…



박봄 집 나왔네, 바람 맞더니 링크 발사 [DA★]



“서아만 보면 용돈” 이연복, 이정현 딸에 폭풍 애정



‘보정 했니?’ 탁재훈·김희선 ‘놀라운 다리 비율’



‘재데뷔’ 스티븐·차웅기 감격의 눈물…아홉(AHOF)은 …



추자현 무속인 되더니 섬뜩…추영우 괜찮을까 (견우와 …



추성훈 ‘오윤완’이 따로 없네, 밥값 하는 근육 (밥값은 해…



원진아vs최영준 처절하게 얹혔다, 파격 서사 (아이쇼핑)



‘♥김지민’ 김준호, 까치집 머리에 슬리퍼…데이트룩 실…



‘싱글맘’ 이시영, 아들과 미국 한달 살기 “행복”



이찬원 부실공사 없는 해외건축물에 감탄 (특파원)[TV중…

워킹맘 로즈 |Sponsored

더 알아보기

충격적인 목주름 생기는 원인 (+80만뷰)

뷰앤디 |Sponsored

더 알아보기

걷기 대신 이 운동, 매일 5분하면 "강철무릎" 될 수 있습니다.

큰딸민지

더 알아보기

얼굴 기미, 더 이상 헛돈 쓰지말고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두아이연구원

오돌토돌 모공각화증, 자꾸 만지지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현명한소비자 |Sponsored

기미 잡티, 더 이상 헛돈 쓰지말고 집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두아이연구원 |Sponsored

한포진 퍼지기 전에 꼭 관리하세요. (+후기 포함)

올바른 치 |Sponsored

한포진 퍼지기 전에 꼭 관리하세요. (후기 포함)

올바른 치

[국내 1위] 미국 로또 복권 당첨금 최대 2조 8천억!!

USA 로또 구매대행

지금 구매하기

60대에도 할 수 있는 "무릎강화" 방법 매일 5분이면 됩니다.

큰딸민지 |Sponsored

더 알아보기

서재걸 “단기간에 ‘목은지방’ 녹이려면 "이것" 꼭 해야!!”

서재걸 다이어트 |Sponsored

더 알아보기

목에 주름이 생기는 ‘진짜’ 이유

뷰앤디 |Sponsored

더 알아보기

주영훈, 구급차 실려가...결국 긴급수술 결정

최윤영-탁재훈 핑크빛? 이상형 어필→썸남 고백 ‘어머나’ (돌싱포맨)

김종국, 62억 자가에 “신혼집 맞다...집들이는 안 할 것”

DongA

장희진♥서장훈 대놓고 플러팅 “몸 좋고 동안” 재혼도 OK (미우새)

DongA





[위클리오늘]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 이경재 기자 | ☎ 승인 2025.06.19 15:07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수완1제, 도천2제 환경정화 활동 실시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지난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용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 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이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지역본부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눠 진행됐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융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역본부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사진=농어촌공사 전남]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라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동석 기자 jds155@naver.com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

수완1제·도천2제서 직원 50여명 참여

2025년 06월 19일(목) 15:5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가 최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최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이다.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 농업용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고취 효과도 불러온다.

지역본부 직원 약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눠 진행됐다.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주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이 기사는 전남매일 홈페이지(www.jndn.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50316394411896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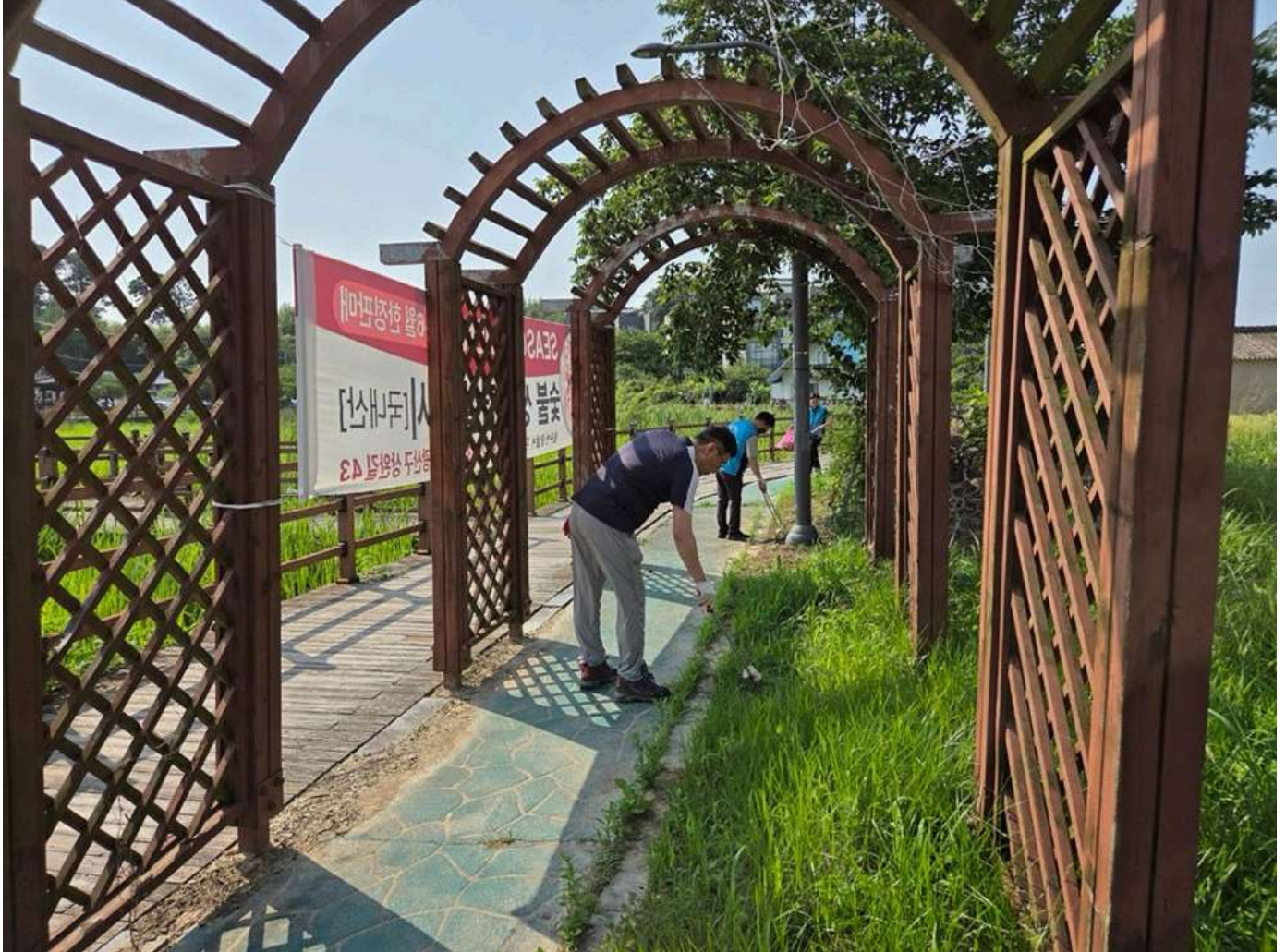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1일 23:31:56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개

수완·도천 저수지서 ESG 경영 실천

안태호 기자

2025년 06월 19일(목) 19:3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19일 “전날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지역본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무더운 날씨에도 저수지 주변 쓰레기를 줍고 주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환경정화 캠페

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daily.com/1750329245658339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1일 23:32:3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수완1제·도천2제 환경정화 활동

ESG 경영 실천

이정진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6-19 21:27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융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역본부 약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농어촌공 전남, 수완1제·도천2제 저수지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 실시

✎ 김미성 기자 | ☎ 승인 2025.06.20 09:47

ESG 경영 실천 활동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지난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용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역본부 약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성 기자

농어촌공 전남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전개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6.19 16:48



[사진 제공=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용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역본부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수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라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

농어촌공사전남본부,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 진행

✎ 김상규 기자 | Ⓞ 승인 2025.06.19 18:22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



지난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진행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친환경 캠페인 현장 모습. 사진=농어촌공사전남본부

한국금융경제신문=김상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광주 수완1제, 도천2제 저수지 두 곳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은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농어촌공사의 대표 ESG 경영 실천 활동으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직원들의 환경 인식 개선과 지역 농업용수의 핵심 기반인 저수지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이다.

지역본부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활동은 두 개 조로 나눠 진행됐으며 저수지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주변 생태환경을 꼼꼼히 살피는 등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캠페인에 임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작은 실천과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넘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ESG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규 기자 ksg760918@kfenews.co.kr